

서로 다른 풍경... 사진의 반전 매력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사진소장품전 '풍경-시' 김영태·박일구·이재용·박홍순·이세현 등 38점

고요하게 읊조리고 있는 다양한 풍경 사진작품들이 모아 펼쳐졌다. 풍경의 숲속을 거닐고 작품들 사이사이 씩어 있는 시(詩)를 읽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사진소장품전 '풍경-시'를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사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출구 없는 답답함으로 코로나 일상을 사는 시민들에게 시적 정서와 여유를 경험케 하기 위한 풍경 사진전으로서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시를 함께 전시한다.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매체로 여겨지는 사진이 반전의 매력을 발휘하면서 시적 상상력을 증대시키고, 과학의 산물인 사진을 통해 뜻밖

의 마음의 안식과 쉬는 경이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전시공간은 '어긋나다', '마음을 놓다', '시가 되다'의 3개의 섹션으로 나뉘면서 서로 다른 결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첫 번째 전시공간인 '어긋나다'에서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모순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용의 작품 '시인의 기억-강정리 정미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뒷전으로 사라지는 상징물로서 정미소를 찍었지만 오히려 화면은 이국적 정취까지 담는 회화처럼 다가온다

거나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동동 떠 있는 부유물을 화면 가득 확대한 문

선희의 작품 '879-06'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듯 작각을 불러일으킨다.

김영태의 '잃어버린 풍경-숨결'은 오염된 하천에 투영된 도시 풍경을 클로즈업 하는데, 정작 인화된 사진은 밤을 밝히는 내온사인으로 인해 컬러풀한 유성의 물감들을 풀어놓은 듯 독특하게 매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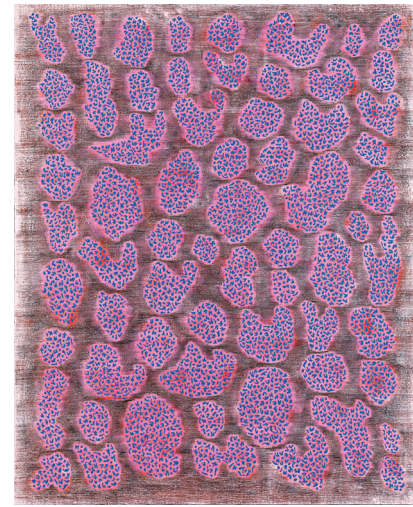
이처럼 카메라의 조작은 현재의 풍경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전시키며, 의도된 간극은 더 큰 심리적 좌장을 일으킨다.

두 번째 공간 '마음을 놓다'는 관람객의 마음을 저절로 놓게 만든다. 강봉규, 강은, 김송택, 김자이, 박상호, 이세현, 조현택은 대상과 교감을 통해 내적 충인함을 한층 끌어 올리면서 물아일체의 경지를 시각화한다. 자연과 교감을 통한 정서적 증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

어내린다.

마지막 공간인 '시가 되다'에서는 박일구, 박홍순, 이주환, 라규재, 유태준, 빌 베클리의 느린 작업이 무한한 공간감과 경계를 지우는 화면을 창출한다. 생활 현장이고 일터인 그곳이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한 우주가 되고, 색채를 지위감에 따라 모노톤으로 바뀌는가 하면 가느다란 꽃줄기의 떨림을 고스란히 전해줌으로써 현상을 넘어선 추상의 세계로 진입시킨다.

시립미술관 전승보관장은 "팬데믹 시대에 시민들 대부분 공기와 같은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재를 마무르고 살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마음 한 구석이 열리는 여백이 필요한데 시적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되며,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수 기자



강지수 작 'The Space of Lyricism'



김유민 작 'Free form 1'

청년 작가들의 세계로 초대

드영미술관, 공모 통해 강지수·김유민 선정

2018년 5월 개관 이래 꾸준히 청년작가 기획전시를 개최해 온 드영미술관이 올해 첫 청년작가 공모를 실시해 강지수, 김유민 작가를 선정했다. 드영미술관은 오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두 작가의 전시를 개최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청년작가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청년작가 공모는 동구청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 2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쳤다. 선정된 강지수, 김유민 작가는 모두 회화를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면서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다.

강지수는 겹겹이 쌓여 중첩되는 다양한 색 위에 스크래치를, 또 그 위에 물감을 얹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며 몸이 기억하는 유전자의 전해와 감정을 함축된 기

호로 이미지화한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화면은 생명의 성소, 곧 안식처를 제안하며 감정을 정화하고 잔잔한 정서적 울림을 주는 서정을 경험케 한다.

김유민은 재료가 화폭에 맞닿으면서 오는 순간성과 우연성에 주목한다. 작업은 예측불허의 삶에서 늘 직면하고자 하는 불안한 상황 또는 미래를 벗어나기 위한 작가가 고뇌를 시각화한 것으로 작품 속에서 우연과 의도가 충돌하며 조화를 이루는 추상적 형상에 주목한다.

드영미술관 김도영 관장은 "앞으로도 다방면의 시도를 통해 참신하고 예리한 감성을 가진 신진 청년미술가들을 발굴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시립사진전시관 '풍경-시' 전시 전경.



김영태 작 '잃어버린 풍경-숨결'

호월 김재민 채색화전 '화양연화'

담빛예술창고서 내달 말까지 회화 20여점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호월(湖月) 김재민 작가의 11번째 작품전 '화양연화'를 마련했다.

담양에서 전통채색화로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김재민 작가는 전시 주제에 걸맞게 청춘의 끝같은 달콤한 추억과 향수를 행복의 색감으로 화면 가득히 풀어낸다.

우리는 시곱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

마다, 달력의 날짜가 지날 때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예술가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상상력의 마법을 발휘해 다시 짜맞추어 달콤한 시간여행을 안내한다.

한지에 색채와 분채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젊음에 대한 예찬과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청춘 에세이를 화면 가득 풀어낸다. 달콤한 청

춘 이야기들은 지극히 시적이면서도 가슴을 적시며 다가온다.

젊음을 소모하며 일해온 인생, 꽃같은 시절 내내 청춘을 바치며 숨가쁘게 달렸지만 여전히 냉혹하고 불확실한 현실들과 마주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 하지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들의 청춘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아름다운 향수로 가득 차 있는 '화양연화' 전시 작품들을 통해 추억으로의 여행과 소중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수 기자



'귀향'

작가는 개인전 11회와 초대·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했다. 전통과형상화, 한·일 미술교류회, 예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문화 매거진 '대동문화' 126호 발행

표지 이야기 산악인 엄홍길 등 다양한 콘텐츠 담아

격월간 문화 매거진 '대동문화' 126호(2021년 9, 10월호)가 발행됐다. 이번호 특집은 색깔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컬러마케팅으로 성공한 '엘로우 시티 장식'의 면면을 소개했다.

표지 이야기는 히말라야 세계 최초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을 초대해 얼마전 사고로 실종된 김홍빈 대장관의 인연과 22년간 38번의 등정 끝에 이룬 완성에 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그림 작업에만 몰두해온 '맨드라미 화가' 박동신의 삶과 작품을 깊이 있게 조명한 '아트라이프', 산나무와 죽은 나무,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등 우주의 이치를 'Roof & Root-불이'라는 주제로 아름답게 담아낸 사진작가 한선영의 '포토에세이' 등 작가들의 열정과 철학도 담았다.

유명 관광지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싱가포르의 히든 플레이스를 찾아간 박은하 여행작가의 '세계문화탐방', 다랭이 논이라는 특이한 지형으로 관광명소가 된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을 걸어본 '사잇길 산책',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바다 위 섬 정월 순죽도를 여행한 '남도마실', 곳곳에 가족사랑의 흔적이 넘치는 담양 달빛여행 정원 등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가 가득하다. /이연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전남매일 2021 September 09 Vol.70

커버스토리
김태봉 광주시지정경찰위원회 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특별 초대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집
신안 특산도 <상>

김태봉 광주시지정경찰위원회 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커버스토리
취임 3개월째...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자신감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1호 시책 주목 주민 참여·소통 활발 권위적 경찰상 탈색 계기 맞게 돼 장기적으로 자치·국가경찰 사무 담당 경찰조직 이원화해야

[특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평범한 국민들과 위대한 변화를 이룩할 터"
'낮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차별없이 들어야 남구 예지지별리, 미래성장속 기대... 주민 주거 환경도 개선 지방대 경쟁력 제고 시급...대선 공약은 실천 가능성에 방점'

[플뿌리기초의원탐방]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주민들 가려움 끊어주는 속시원한 의원되겠다"
동 명칭·구역조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 두각 청소년지도사 등 자기개발 속 지역사회 소통 주목 공약 이행 광복-도시재생 등 현안사업 해결 주력

[한국의 명장] 탕화장 현담스님
조선 탕화 화맥 잇는 탕화장 천연석채 복원 위해 재료·기법 발굴 시대 반영에 로켓·핸드폰 그려넣어

[가볼만한 곳]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순수문학 이으며 전국 문학관 변역
한국 순수 서정시의 진수 문인한재에게 '시문학' 원본, '님'원본 초간본 등 전시

지역대학 위기, 해결방안은
[이슈추적]
광주·전남 대학 '학과 신설'로 위기 대응 전남대 140명 조선대 129명 등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 원인...정원외진 미스매치 발생 광주·전남도 유관 기관 등 협의체 구성

GGM 신차 양산체제 돌입
팩트체크
GGM, '따끈한 신차' 출시 임박 현대차 위탁 생산 1000cc급 경형 SUV을 연말까지 4개월간 1만2천대 생산 목표

건강백세
홍어와 경옥고
시간의 미학

경제인 인터뷰
영원한 안식처로 떠나는 특별한 공간 '천지정려식당'
3,500평 규모 고급 호텔식 정려시설 원비 마음은 함께 나누고 힘은 일로 먼저 실천
배창숙 천지정려식당 대표

맛있는남도 순천 웃장국밥
깔끔하고 개운한 맛에 푸짐한 인심까지 돼지 찜자 아닌 돼지 머리 사용해 깔끔 넉넉한 한 접시, 수육·순대 서비스로 즐겨 불거리 즐기기 가득 웃장 국밥 축제